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미사시간	주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 19:00	
			06:30 (새벽),	10:30 (교 중)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 년)	
	평 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총무	옥윤필 마티아 010-5117-5564			

본당 설립 60주년 전 신자 성경 통독 봉헌 (2022. 3. ~ 2023. 9. 30)

● 알 림

- 오늘은 평신도 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11월 9일(수) 저녁 8시 본당 임원 모임이 식당에서 있습니다.
- 11월 11일(금) 병자영성체(봉성체) 있습니다.
- 11월 16일(수) 11시 경로당 월례 미사가 소성전에서 있습니다.
- 매주 목요일 10시 40분 시니어 아카데미가 강당에서 있습니다.
- 새벽 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 모 임

단체명	일 시	장 소
위령봉사회	11월 6일(일), 11:40	강 당
M.E.	11월 6일(일), 마재 성지 순례	
1Cu-우리어머니	11월 13일(일), 12:00	강 당
2Cu-사도들의 모후	11월 13일(일), 13:30	강 당
울뜨레아	11월 20일(일), 11:40	강 당
3Cu-사랑의 모후	11월 20일(일), 13:00	강 당

● 청소년 후원회 모임

- 일 시 : 11월 12일(토), 오후 5시
 - 장 소 : 채선당 (☎ 865-5633 / 대림점)
 - 대 상 : 청소년후원회 회원, 사목위원, 청소년 사목 후원을 위하여 뜻을 함께하실 모든 분
 - 문 의 : 이계명 다니엘 회장 (010-5335-2236)
- ※코로나19 이후 첫 만남이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교 육 / 강 좌

- 살레시오와 꿈(CUM) 후원 미사
- 일 시 : 10월 3일(월), 10시
- 지도신부 : 심재현 치릴로 신부님

● 생활성서사 문서선교

- 일 시 : 2022년 11월 12일~13일
 - 판매서적 : 각종 신앙 서적
 - 주 관 사 :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의 생활성서사
- ※ 신앙생활에 양식이 될 좋은 책과 월간지를 통해 일상의 삶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서울대교구 제16지구 항동성당 신축지원 *

- 제16지구 사제회의 결정 (2022. 3. 3.)
- 지원금액 산정 : 본당 신자 수 × 10,000원
- 납부 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 10월 31일 현재 ₩18,300,000납부되었습니다.

● 새로 오신 교우를 환영합니다. (10/1~10/31)

구 역 반	성 명	세 례명	이전 본당
10구역 5반	김진수	야고보	춘천교구/성산
18구역 2반	박지현	카타리나	대림동

● 다음 주일(11/13)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9구역	청 소	4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10월 26일 ~ 11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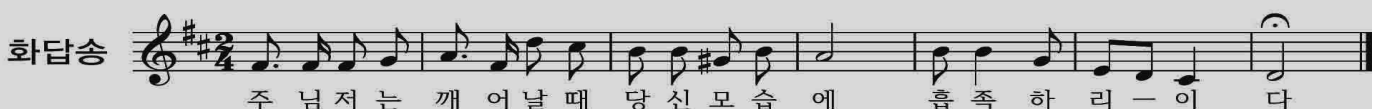
- 교 무 금 8,080,000원
- 주일헌금 4,901,500원
- 오라토리오 2차 헌금 1,469,000원
- 감사헌금 김○○ 5만원 신종구 5만원 김○○ 7만원

● 교종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 일	해 설	복 사	독 서
11/6	손진희	심재순 김진수	최웅조 권태희
11/13	구민서	조흥환 도현만	장익근 민옥경

● 성체 분배자 명단

월 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11/6	박승환	최창열	손상민	이계명 최승일
11/13	이화봉	김인기	최석준	최승일 김광수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진실에서 새롭게 시작하기

226. 새로운 만남은 갈등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월과 더불어 우리는 모두 변하였습니다. 고통과 반목이 우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또한 공치사, 가식, 이중 발언, 은폐, 현실을 감추는 미화된 태도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격한 대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말할 때 명확하고 숨김없는 진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들은 과거 기억에 대하여 참회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억의 참회는 자신의 후회스럽고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미래를 어둡게 하지 않도록 과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줍니다. 사건의 역사적 진실만이 서로를 이해하고 모든 이의 선을 위한 새로운 종합을 추진하는 항구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낳을 수 있습니다. 사실 “평화의 여정은 지속적인 투신을 요구합니다. 평화의 여정은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고,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복수심보다 더 강한 공동의 희망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길을 여는 인고의 노력입니다.” 되풀이되는 갈등에 대하여 콩고 주교들이 말한 대로, “서면 평화 협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재발하고 있는 이 위기의 근원들에 대한 진실의 요구를 포함하여 훨씬 더 많은 진척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227. 실제로 “진실은 정의와 자비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결합되어 평화를 건설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셋은 각각 서로가 변질되지 못하게 해줍니다. …… 실제로 진실은 보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해와 용서로 이끕니다. 진실은 고통으로 얼룩진 가정들에게, 그들의 실종된 친지들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폭력의 앞잡이들이 징집한 미성년자들에게 벌어진 일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폭력과 학대의 피해 여성들이 겪은 고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가하는 폭력은 모두 인류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무참한 죽음은 전부 우리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고, 증오는 또 다른 증오를 낳으며, 죽음은 또 다른 죽음을 낳습니다. 우리는 피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사슬을 끊어 버려야 합니다.”

평화의 건축과 예술

228. 평화를 향한 여정은 사회의 동질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게 해줍니다. 평화를 향한 여정은 많은 이들이 하나 되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공동 연구에 매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동의 특정 목표 앞에서, 광범위한 실천적 제안들, 다양한 경험들이 공동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난관을 바라보고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면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잘 식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은 공존을 향한 여정은 언제나, 다른 이들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합당한 관점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을 인정하도록 요구합니다. 과오나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어도 재평가받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지니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결코 그가 한 말이나 행동에만 국한하여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이 자신 안에 지니고 있는 하느님 약속을 보고 그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 약속은 언제나 희망의 빛을 비추어 줍니다.